

2009-4-12, 15 주일, 수요일에서 육이 영으로 부활되는 내용을 토마스 주남을 통해 자세히 살펴봄

토마스 주남의 책을 보면, 주님이 그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 그 육신은 침대에 눕혀 놓고 그 영을 데리고 가셨는데 순식간에 갔습니다.

Q : 육이 영으로 부활될 때 육신은 남고 영만 변화되어서 가는가?

토마스 주남도 내가 그 영을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죽었던 베다니 나사로는 세상에 살아야 되기에 육신을 중심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고로 그 전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되었다.”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육을 살리고, 영이 죽었으면 영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을 중심으로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것으로 순간 오해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흙이 도자기로 홀연히 부활되고 꽃이 열매로 홀연히 부활되듯이, 주님의 육이 영으로 홀연히 부활되었습니다. 고로 주님은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고 만져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고 만져 보아라.” 하셨습니다.

선생도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는데 만져지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힘줄까지 다 보였습니다. 주님이 붓을 주셨을 때와 붓을 잡고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손등과 손가락까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람과 똑같은데 잔주름이 없고 피부가 팽팽했습니다. 그

러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영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해 보았습니다.

천국은 영이 보통 육체 이탈을 하듯이 하여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선지자 토마스 주남도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고, 빛보다 수백만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참을 만들었다. 본인도 몸부림의 고통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 속 시원히 보여 달라고 한다고 보여 줄 수 있겠느냐.

(육체 이탈에 대한 다른 내용들)

- 내 영이 육체 이탈을 하여 빨리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빠르기가 빛보다 빠르다는 정도만 알았지 몇 천 배, 몇 만 배 빠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대강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고로 육이 잘 때 영은 나름대로 육체 이탈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고 육성을 약하게 하면 영이 그만큼 영의 생활을 하여 주님과 가까이하게 됩니다. 영을 중심으로 영육 간의 삶을 살기에 신령한 영이 됩니다.

네 꿈에서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모두 계시다. 큰 새가 여자로 변하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느냐. 나무의 꽃도 과일로 점점 변해 가고, 음식을 먹으면 부드러운 살로 변해 있고, 저녁노을이 시간에 따라 황혼으로 홀연히 변하고, 사람도 커 가면서 그 모습과 성격이 변화하고, 초가집이 양옥으로 변하고, 월명동 산골이

자연성전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듯이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 같은 이치다.

우리들의 영이 하늘나라의 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같이 빨리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영들은 지상 영계에서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려면 주님이
우리들의 영을 더욱 강하고 빛나고 새롭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육이 영으로 부활될 수 있다?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육이 영으로 변한 천사 같은
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으로 왔으니 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데서 그대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 성경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육이
올라갔는데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는 분명 영이었습니다. 육신
이 홀연히 변하여 영체가 된 것입니다.

육이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 : 예수님, 엘리야, 토마스 주남
... 그럼 모세도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상에 있었는데... 모세의 시
체를 가지고 변론 했지 않는가?

영적 역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 역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영만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도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영이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실제로 육이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육이 죽을 자도 살려 주시고, 경제도 살려
주시고, 먹고 입는 것 등 육적인 표적을 다 일으켜 주셨습니

다.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 오해받으면서 고통 받을 것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만 계속 역사를 펴 왔기에 영들은 강합니다. 이제 육적인 것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표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한 근본의 말씀을 몇 가지만 더 배우고, 내가 말한 대로 알고 전하면 흠이 없다. 너무 영적으로만 보면 더 큰, 육적인 세계에서 일으킨 표적을 못 본다. 나의 영만 부활했다면 표적이 될 수 없다.”